“춥다...”

체육복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여전히 쌀쌀하다.

겨울인데 추우면 체육 수업은 적당히 빼줘야 하는 거 아냐?

곰도 추워서 자러 가는 마당에 체육관에서 알아서 운동하라는 건 청소년 학대잖아.

다른 애들도 나와 생각이 비슷한지 운동하는 시늉만 하고 펭귄처럼 모여서 움직이질 않는다.

몇몇 그룹을 빼면.

“받아~!”

하프코트에서 1학년 애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인원수도 안 맞고, 뛰는 사람도 없으니까 농구라기보단 공놀이려나.

남자애 여자애들이 사이좋게 섞여서 노는 게 무슨 고등학교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

방청객이 된 기분으로 멍하니 그걸 보고 있자니,

“아, 빠졌다!”

거기서 누군가 놓친 농구공이 내 쪽으로 통통 튕기며 굴러왔다.

“저기요~ 공 좀 던져주세요~”

농구공을 던져주려 앞을 봤을 때, 채아람과 눈이 마주쳤다.

“어, 선배? 선배 반도 체육이에요?”

“응. 너도?”

“네. 체육관 쓰니까 겹쳤나 봐요.”

“그러게.”

농구공을 원바운드로 살짝 튕겨 채아람에게 패스했다.

채아람은 공을 받아들었는데도 자리에 서 있었다.

“안 가고 뭐 해?”

“선배는 거기서 뭐 해요?”

“그냥 휴식.”

“그럼 같이 농구 해요! 한 사람 더 껴도 되는데.”

채아람은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뒤로 돌았다.

“야~ 우리 농구 1명 더 껴도 돼~?”

!?

“뭐야. 누군데?”

“우리 반이야?”

농구 코트에 있던 1학년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우리 반에 이런 애 있었나?”

“난 첨 보는 얼굴인데.”

채 “나랑 같이 학생회 하는 2학년 선배야.”

“아, 선배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어색하게 얘기하는 이 상황.

진짜 질색이야...!

“근데 선배.”

“으, 응.”

“학생회 왜 그렇게 바빠요? 학생회 때문에 요즘 아람이랑 놀지도 못하겠어요.”

“그게.. 학생회가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 생각보다 엄청 바빠.”

미지에 관한 일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진짜 바쁘긴 하다.

“하아. 그래서 아람이 저번에 노래방 갈 때도 안 왔다니까요.”

“아~ 그때? 그날 누가 이상한 랩 부르지 않았냐?”

“이상한 랩 아니거든? 이번에 오디션으로 데뷔한 그룹 타이틀곡이야!”

어느 틈엔가 농구는 뒷전이 되고 자기들만의 수다가 시작됐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부터 인기 순위에 새로 올라온 곡까지.

주제가 이것저것 바뀌었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입 닫고 방청객처럼 고개나 끄덕이자…!

[ 딩 동 댕 동 ]

그렇게 1학년들의 수다를 듣고 있으니 어느 틈엔가 체육 수업이 끝나버렸다.

“얘들아, 수업 끝났다~ 교실로 돌아가라~”

체육 선생님의 귀찮은 목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하나둘 교실로 돌아간다.

“선배,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인싸 그룹도 다행히 떠나갔다.

“저기요, 선배.”

불만스럽게 날 째려보는 채아람만 빼고.

“아까 왜 그렇게 말이 없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구.”

“방금 본 사람이 친한 척하면 그렇잖아.”

“뭐가 그런데요?”

“괜히 친한 척한다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에 있었던 우리 반 애들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말을 걸었을 때 그 반응은.

...아무튼 좀 그랬다.

“그럼 저도 좀 기분 나빴어요?”

통.

채아람이 내게 튕겨 보낸 농구공을 얼떨결에 받았다.

“저도 선배 알게 된 지 별로 안 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긴 했다. 나도 채아람을 안 게 저번 주니까.

이렇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떠들 만큼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긴 하다.

하지만 채아람이 다가와서 친근하게 구는 건...

“...기분 나쁘진 않았어.”

채아람에게서 받은 공을 다시 패스했다.

통.

“그쵸? 그니까 선배도 다음엔 같이 얘기해요.”

채아람은 공을 받고는 걱정 없는 얼굴로 웃었다.

“아는 사람 늘면 즐겁잖아요?”

“새로 아는 학생회 선배도 생기고, 이렇게 공 받아줄 사람도 늘고.”

“그리고 또.”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채아람이 내가 받기 힘든 곳으로 공을 튕겼다.

통. 통. 통.

아슬아슬하게 농구공을 잡았을 때, 채아람은 체육관 출구로 걸어가고 있었다.

“선배만큼 놀리는 맛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지막에 공 쓴 사람이 정리하기에요~!!”

“......”

당했다.